

ACTS29 성령집회 4

하나님의 기름부으심 (이사야 61:1~3)

하용조 목사 / 2004년 10월 09일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맡기실 때 기름 부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제사장, 예언자 등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신약에 오면 구약에 서와 같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성령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 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러분의 기도 속에도 이와 같이 보혈의 피가 뿌려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길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한 사람을 축복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시편 23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실수와 허물이 큰 내가 거룩의 옷을 입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축복입니다. 기독교 축복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나를 쓰시는 것, 내가 하는 것,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사역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사 기름 부으시고

“주 여호와와 그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와 그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

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와 의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신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 부으심의 은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인하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의 육과 영을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서 하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세례의 특징은 믿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언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단회적입니다. 이것은 수원에 파이프를 꽂는 것과 같습니다. 파이프를 꽂으면 그것을 통해 계속 물이 흘러넘칩니다. 이 처럼 성령 세례를 통과하면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 역사와 기적들이 계속 흘러넘칩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성령 세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 그저 교회만 나오고 옛 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한 분들은 오늘 성령세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물은 마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할수록 더 커지고 강해집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불과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님께 플러그인 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성령 충만은 과거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파이프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수동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수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간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오늘 본문 말씀과 누가복음 4장의 예수님 말씀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령이 임하면 기쁨 부으심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으면 성령 충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가난하고 병들어도, 죽음 앞에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의 기쁨 부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마태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성령 세례, 성령의 불과 성령의 능력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기도를 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기도 응답이 이렇게 되는 것임을 느끼실 것입니다. 기도응답은 내가 기대했던 것 보다 항상 더 크고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령의 기쁨 부으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눌린 자에게 놀임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받았다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십시오. 상한 자를 고치십시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놓이게 하여 주십시오.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 주십시오. 성령의 기쁨부음을 받으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 부으심과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음을,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십시오. 당신에게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 부으심의 목적은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고 자식이 잘못되면 그 부모가 욕을 먹는 법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기쁨 부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희망의 전도사가 되십시오.

* 출처 : 온누리신문